



겨울밤 '빛의 향연' 주말인 지난달 30일 오후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진 '2024 겨울밤 빛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빛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빛과 예술이 어우러져 대형 아트 공간으로 꾸며진 빛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김영근 기자

작년 전남 교통사고 최다 지역 '여수'

1천304건...사망자수 19명 '사고 415건' 영암 공동 1위 전남경찰청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대불산단 예방책 추진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수로 나타났다.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와 영암이 19명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영암은 타 지역과 달리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전남경찰청 관서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건수는 여수가 1천304건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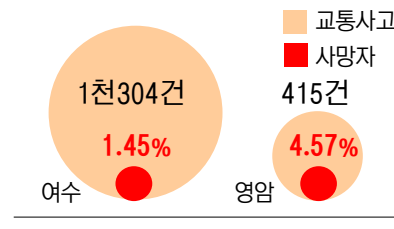
그 뒤는 목포 1천277건, 순천 1천103건으로 각각 1천건을 넘었으며, 광양(620건), 나주(621건), 영암(415건), 강진

(284건), 화순(289건), 해남·담양(각각 283건), 장흥(248건), 무안(220건), 고흥(198건), 보성(177건), 장성(169건), 함평(168건), 완도(146건), 영광(130건), 곡성(115건), 진도(114건), 구례(97건), 신안(64건) 순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수와 영암이 19명으로 나란히 1위였으나,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신안(사망 9명)이 11.1% 정도로 가장 높았다. 여수와 영암의 비율은 각각 1.45%, 4.57% 수준이다.

이는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



실제로 여수는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1천356건에서 2022년 1천384건으로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22명에서 1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영암은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321건, 2022년 388건, 2023년 41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사망자수 역시 동 기간 각각 14명, 14명, 19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영암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2명 중 29명은 대불산단이 위치한 삼호읍에서 변을 당했다.

조선업계 호황으로 영암지역 내 대불산단을 오가는 화물차 등의 통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망자 중 36.8%는 차량 간 측면 충돌이 원인인데, 이는 다른 유형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전남도와 영암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대불산단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위험도로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23 해질 17:20
🌙 달뜨기 08:23 달짐 17:47

인천	9/12	서울	7/13	대전	6/15	전주	7/16	목포	9/16	흑산도	10/16	제주	12/18	여수	10/17																																							
춘천	2/11	강릉	8/16	도도	6/17	광주	6/17	부산	10/18	광주	구름조금	6/17	목포	구름조금	9/16	여수	맑음	10/17	나주	구름조금	5/17	완도	구름조금	8/18	구례	구름조금	5/17	강진	구름조금	5/18	해남	구름조금	6/18	장성	구름조금	4/17	보성	구름조금	3/16	순천	구름조금	7/18	영광	구름조금	6/17	진도	구름조금	8/17	흑산도	구름조금	10/16	고흥	구름조금	5/18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60** 🏠 **빨래 70** 🚗 **세차 80** 🏃 **운동 60**
포근한 외투 챙기세요 |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하기 좋은날 | 땀 흘린 후 감기 조심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1.0-2.0
남해 앞바다(북)	1.0-2.0	1.5-3.5
남해 앞바다(남)	1.0-2.0	1.0-2.5
남해 앞바다(동)	0.5-1.0	0.5-1.5
남해 앞바다(서)	0.5-1.5	1.5-2.5
남해 앞바다(남서)	0.5-2.0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2:12	07:33
여수	09:44	02:58
녹동	21:37	15:50
녹동	10:30	03:54
녹동	22:16	17:00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2월 3일(화)	☀ (1/7)	☁ (-4/3)	☀ (1/8)	☁ (-1/7)	☁ (8/10)
4일(수)	☁ (0/10)	☁ (-2/5)	☀ (1/8)	☁ (-1/8)	☁ (7/12)
5일(목)	☁ (3/11)	☀ (-1/6)	☀ (2/9)	☁ (1/9)	☁ (9/12)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산구,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 공연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오는 4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 광산구는 1일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나는 고려인이라는 고려인의 이주와 연해주,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현했으며 ▲사라진 아리랑 ▲일어서는 아리랑 ▲기억하는 아리랑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조명희 고려인 시인과 한진 극작가의 한글문학, 구전 민요, 노래 음원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공연 관람은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다.

예매 등 궁금한 사항은 공연팀 (062-940-5941) 또는 광산구 외국인주민과 (062-960-4141)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려인 마을은 현재 7천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은 민족의 동질감과 자긍심을, 관객들은 동포애와 문화 감동을 각각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광주시가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미세먼지 예

측 및 선제 대응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초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비상 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선제적으로

로 지난달에 가동 시간을 단축했다.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는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38개소에서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취약계층 이용시설 1천972개소는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국내외 기상 변화 추이를 관망해 미세먼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북개사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점포수 : 260곳
· 시장면적 : 10,582㎡

· 주요취급품목
- 생식품(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생법자의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